

부자되세요!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공간에 들일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공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개역, 여호수아 6:15~7:1]

우 리 교회는 행사 있을 때마다 퀴즈를 잘 내던데 저도 오늘은 문제를 하나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 ‘남보다 빨리 10억 만들기’ 이게 뭐죠?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 ‘나의 꿈 10억 만들기’ ‘한국의 부자들’ 이제는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뭐죠? 아마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들이 전부 책 이름입니다.

‘20대 독립해서 1억 만들기’ 그 옆에 붙어 있는 말이 ‘청년이여 돈 없으면 희망도 없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남보다 빨리 10억 만들기’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걸 아마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제목이 익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전부 부자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안 봐도 이런 책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책 본다고 부자 될까요? 이런 책 본 사람이 다 부자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책 쓴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책 본다고 쉽게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조할 것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 인사 ‘부자되세요’

요즘 인사가 ‘안녕하세요?’ 대신에 ‘부자되세요’입니다. 부자 되세요 하면 그냥 좋게 듣고 말면 되는데 ‘그런다고 부자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부자되세요’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돈을 쫓아 가서는 안된다. 돈이 따라와야지’란 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돈을 위해 노력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애쓰다고 다 되는 것 아닌데 다른 것 다 희생하고 돈만 목표로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도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낸다.’ 이걸 아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면 그런대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노력하라는 뜻 같습니다.

돈에 가장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결국은 돈이 우리 사고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느 때에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돈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그리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거의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큼 규모가 크다는 교회는 몸으로 봉사하기보다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열심히 땀흘려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돈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서로가 현명하게 일들을 잘 꾸려나가면서 돈이 최우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돈이 중심이 되고, 돈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때문에 사람들의 간이 커져서 요즘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은 돈 축에 들지도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돈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고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전 어차피 돈하고 담쌓고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볼 수 있거든 한 번쯤 보십시오. 단,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그런 책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공이 된 이런 시대에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이 커야 큰 부자가 되지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생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하고 같은지 다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의 온 백성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막강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손에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멀쩡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지금 이리로 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단강물을 또 마른 땅처럼 갈라놓고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온통 두려움에 싸여서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위낙 튼튼하니까 ‘올테면 와봐라’ 그래서 딱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는 형편인데 라합의 집에 낯선 정탐꾼이 들어온 것이죠. 라합만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낯새를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왕의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때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라합은 정말 간 큰 여자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간 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라합이 정말 간이 컸던 모양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긴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내가 당신들을 살려 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우리 친족을 살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친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짓을 라합이 감행한 거죠.

간도 잘못 크면?

반면에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내린 주의 사함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라합의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두 가지 사함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약간 어려운 말이 있으므로 본문을 한 번 봅시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치는 물건을 스스**

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할까 함이라' 이 말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다 구별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곧 구별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구별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문 어딘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거기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바쳤으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중간에,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가 취하게 되면 너희가 도로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 너희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 성을 침공할 때 주어진 명령 중에 하나는 라합의 가족을 살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세겔 그리고 금덩이 오십세겔이었습니다. 그걸 훔쳐서 자기 장막을 파고 거기다 묻어 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면전에서 아간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아간?

아간이 너무 심하게 벌을 받은 것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 지은 죄도 있지만 너무 심한 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멀리 가서 짓든지 하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면전에서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안 보이는데서 욕하는 거야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면전에서 하는 욕은 죄가 큼니다. 아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만성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월을 40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강둑에 물이 쿵쿵 넘치는 그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리고 성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지른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간에게는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것을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처음 느꼈을 때는 참 놀라고 감격했겠지만 날마다 반복이 되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사니까 그 고마움을, 그 감격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에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우린 참으로 적응을 잘 합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함께 부대끼다 보면 건달만 해요. 시골 화장실요? 냄새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코를 틀어 막지만 거기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으면 건달만 합니다.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

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다가 얼마쯤 지나면 만성이 되어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마는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혼자서라도 교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움으로 교회 다니던 분이 세월 지나서 온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과거의 안타까움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정상?

좀 안된 얘기지만 '진실한 교회는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하나도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요? 여기야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겁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들키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 말로 진짜 신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감격이야 하는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가 못가고 시집 못가서 안달하던 때를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서로가 다시는 볼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서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하면서 사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간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살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지 아니면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재물에 욕심을 내서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참지...

옛날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싸우면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해도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아간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재물에 탐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첫 새끼는 내 것이고 첫 아들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다 네 것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부터는 하나님께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못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원칙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인식을 시키고 그런 훈련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횡재한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짜나 횡재를 바라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많은 재물은 복이 되지만 그런 것 없이 횡재하듯이 얻는 재물은 결국 그 재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탐이 나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라합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이 보통 여자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온 낯선 손님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보는 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

라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소식을 라합도 알고 있었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라합이 다른점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 라합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책 사면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책 중에 어느 것을 샀어도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마 따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책 한권 읽으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기를 쓰고 따라 해야 뭐가 돼도 되겠지요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라합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아간은 재물이 그렇게 탐이 났지만 라합은 소문에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취할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재물도 탐이나고 하나님도 탐이나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신앙도 잘 가꾸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라합이 죽을 각오를 하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요? “똑같은 월급 가지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도 못살 판인데 그걸 떼어서 헌금하고, 누구 돕고, 뭐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사냐?” 아니 그런 얘기 가끔 안 들습니까? 안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언제 새벽기도 가고, 날마다 예배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잠은 언제 자냐?” 그런 얘기 안 들습니까? 전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며 승진도 하고 재물도 모으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하고 때로는 욕 먹어가면서도 해야 하고 어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 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숙해지면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민족에게는 반역이요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바로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라합의 삶을 통해서 간접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 부자가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생이요 이방인이요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듬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롯을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오벧이고 오벧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이죠.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부자 되었나요? 부자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이 복은 누군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장본인이 우리 자식들이 아닐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복을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을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와 체면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뭐니까? 낮출 때 진정으로 높아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다투어 항상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질 줄 아는 성도가 진짜 높은 성도요, 그가 부한 성도입니다. '나는 마 지고는 못산다?'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지고 못산다' 그러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시거든 지고 사십시오. 그게 부요한 자입니다. 체면이 좀 꺾인다 싶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란 애깁니다.

아파트 펑수 좀 넓은 사람이 부럽고, 그럴싸하게 좋은 옷 좋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남의 자식들은 대학을 잘도 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공부 왜 이 모양이나? 이래서 기가 죽고 부끄러워 못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풍성한 은혜에 감격해 사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거만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떨어져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3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늘 합니다, '합격해도 당당하게 들어오고 떨어져도 '선생님, 저 떨어졌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들어오너라. 적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대학 떨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기 죽을 일 없다. 시험치러 갈 때 미역국 먹고 가서 붙어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자 되라고는 잘 말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표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부자라는 겁니다. 혹시 모임에 내가 끼면 문제가 생기고 나만 들어가면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라는 말을 합니다. 선한 일에 부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부자라는 것이죠. 부동산 부자는 부자축에 잘 안들 때도 많아요. 부동산 부자는 참 가난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때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부자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성도는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부자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자는 달리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약속하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진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저 보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고 묻더라구요 대답이 좀 궁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성깔이 좀 안 좋더라는 건 저 자신도 압니다. 속이 넓은 축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제 답은 "화가 잘 안 나는데요?" 입니다. 왜요? 부자거든요. 부자는 푼돈에 그렇게 방방 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소리 좀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좀 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자고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나 이러고 있나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작은 소

리 하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향하여 초라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보다 돈이 좀 더 있고, 남보다 사는 게 좀 낫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하면 눈멀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부디 부자 되세요!

재물을 좇아 달려갔던 아간은 결과적으로 재물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재물은커녕 목숨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라합은 결국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라합이 목숨 버릴 각오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 보낸 것처럼 우리가 목숨 버릴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라합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만 부자되는 책을 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부자는커녕 잘하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악세사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재물이 악세사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일로 해서 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문외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서 활용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게 낸 사람이 누구냐? 정답은 국세청장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잘 아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세금을 얼마 안 내었더라구요. 하나도 불법은 없어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재물이나 세상만 보인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망할 징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은 아직은 가망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싶으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은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은 다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부자되세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벌써 부자 되었습니다!' '전 부자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

[2004.01.04] 부자되세요! (여호수아 6:15~7:1)

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